

### ◇농흉환자에서의 Clagett procedure

홍윤주, 이두연, 김해균, 이교준, 황정주, 신화균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호흡기센터, 흉부외과

**배경 및 목적** : 전폐절제술후의 농흉은 드물지만 흉부질환 수술후 심각한 합병증이다. 농흉에 대한 초기 치료는 폐쇄 흉관삽입술과 open window formation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definitive 치료 방법으로는 기관지늑막루가 있는 경우 직접 재봉합하거나 혈관이 있는 flap 을 이용하여 공간을 채우는 방법 등이 있다.

**방법** :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 흉부외과에서는 1991년1월부터 1997년12월까지의 농흉으로 인한 open window formation을 시행 받은 43명의 환자 중에서 5명에서 clagett procedure을 시행하였다.

**결과** : 5명 모두에서 남자였고 연령은 평균 57세[범위 47-65세]였으며 농흉발생전의 수술로는 우측 전폐절제술 2례, 좌측 전폐술 2례, 우측농흉1례였다. 5례 모두에서 open window formation 을 시행하였고 2례에서 기관지 늑막루가 동반되었다. open window formation 을 시행한 후에 clagett procedure을 시행한 기간은 평균 39.2개월[범위5-72개월]이었으며 clagett procedure을 시행한후 평균추적기간은 10.8개월[범위8-19개월]이었다. 수술후의 합병증으로는 재발이 1례, 창상의 치유의 지연 2례 였다.

**결론** : 전폐절제술후 발생한 농흉의 적절한 치료 방법중 하나로 농흉 환자에서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

책임저자:이두연(연세대학교) 발표자:홍윤주(연세대학교)